

## 스마트폰 알람이 멈춘 원시림 비로소 휴식이 시작됐다

완벽한 고립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미지의 낙원이 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해안 너머로 펼쳐진 덤테로카프 원시림이다.  
이 거대한 대자연 깊숙한 곳에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가 조용히 숨어 있다.  
대자연의 품에 안겨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온전한 치유의 공간이다.

by\_정희원 기자\_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에서 제셀톤포인트 선착장까지 차량으로 15분 남짓. 이후 리조트 전용 보트로 갈아타고 10분만 물살을 가르면 거릿말처럼 숲으로 뒤덮인 섬에 닿는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속을 밟고 리조트에 입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한 시간 안팎. 매년이 가득한 도심에서 완벽히 통제된 원시 자연으로, 마치 영화 속 장면이 전환되듯 극적인 공간 이동이 이뤄진다.

섬에 첫발을 내디디면 가장 먼저 넉넉한 공간의 여유가 여행자를 품는다. 리조트는 121개의 빌라를 품고 있지만, 결코 붐비거나 소란스럽지 않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깎아내는 대신 맹그로브 숲과 언덕 경사면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객실을 널찍하게 분산한 덕분이다. 발길 닿는 곳이 모두 전망대다. 맹그로브 숲 위로 떠 있는 캐노피 빌라,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질이는 바유 빌라, 남중국해와 키나발루산의 장엄한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키나발루 빌라까지. 전체 객실에 널찍한 프라이빗 발코니와 테이베드가 마련돼 있어 문밖을 나서지 않아도 나무를 타는 야생 원숭이나 코뿔새와 가까이에서 조우할 수 있다.

시선마저 차단된 철저한 고립을 원한다면 선착장에서 전용 보트를 타고 5분가량 더 들어가는 타바준 베이 프라이빗 비치로 향하면 된다. 투숙객에게만 허락된 이 은밀한 해변에서는 온전한 쉼을 만끽할 수 있다.

#### “맹그로브 카약... 고요가 건네는 숲의 신비감

리조트의 모든 시계는 ‘썹’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철학에 맞춰 느리게 흘러간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액티비티는 격렬한 활동이 아니라 숲이 품은 신비감에 가만히 젖어드는 과정이다. 그중에서도 맹그로브 카약은 가장 낮설고도 경이로운 고립감을 안긴다.

눈부신 피약별이 쏟아지는 바다를 노 저어 가다 맹그로브 숲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공기의 질감부터 확연히 달라진다. 하늘을 뻗뻗하게 가린 거대한 맹그로

브나무 터널 아래로 진입하면 주변 온도가 뚝 떨어지며 피부에 서늘한 기운이 맴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일제히 뿜어내는 맑고 무거운 산소가 폐부 깊숙이 스며든다. 바깥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묘한 신비감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카약 노가 물을 가르며 소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뿐이다. 무더위 속에서 만나는 이 압도적 청량함과 고요함은 일상의 찌든 때를 씻어내는 듯한 희귀한 경험이다.

#### ‘세계 3대 석양’ 크루즈, 현지 향신료가 빛어낸 미식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보르네오의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신한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는 남태평양 피지, 그리스 산토리니와 함께 세계 3대 석양으로 불리는 곳이다. 적도와 가까워 대기가 맑은 탓에 빛의 산란이 빚어내는 색채가 유독 짙고 강렬하다. 전용 요트를 타고 선셋 크루즈에 오르면 이 비현실적인 장관을 바다 한가운데서 독차지할 수 있다.

시각적 환희가 끝나면 말레이시아 전통이 담긴 미각의 향연이 펼쳐질 차례다. 메인 다이닝 공간인 피스트 빌리지에선 현지 특유의 풍미를 살린 다채로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탱글탱글한 새우와 아삭한 채소를 볶아낸 면 요리 미고렝,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매콤한 삼발 소스와 멸치를 곁들인 나시르막이 별미다.

하늘이 어둑해지면 해변가 레스토랑 ‘피셔맨스 코브’가 붐비기 시작한다. 이곳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한 신선한 해산물을 취급한다. 현지 향신료를 곁들인 말레이시아식 생선찜은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 성인 손바닥보다 큰 타이거 새우구이는 특유의 불 향과 풍부한 육즙이 살아 있다.

눈을 감고 숲의 냄새와 파도 소리에 온전히 몸을 맡기며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굳이 먼 길을 떠나와 진정으로 찾고자 한 것은 화려한 볼거리가 아니라 이토록 무해하고 다정한 자연의 품이었음을.◎